재개발 · 재건축 정비사업 통합심의 가동

전주시, 2월 중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신속 정비사업 추진 · 사업시행자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전주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 운영하도록 의무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1월 19일)됨에 따라 오는 2월 중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지난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일반 공동주택건설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왔다.

하지만,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통합심의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건축·경관·교통 영향·교육환경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별 심의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어려웠다.

이에 시는 관계 법령이 개정된 만큼 곧바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통합심의를 시행키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에 필요한 건축, 경관,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심의가 통합 운영되면, 평균 10개월 정도 소요되던 심의 기간이 약 3개월로 총 7개월 단축돼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인허가 기간 등이 단축되면서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돼 침체된 건설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전주지역의 경우 현재 추진중인 재개발 정비사업 10개 구역과 재건축 정비사업 9개 구역 등 총 19개 구역이 개정된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된다.

시는 통합심의가 시행되면 보다 효율적인 행정 운영은 물론, 각계 전문가의 종합적인 심의를 바탕으로 정비사업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그동안 정비사업의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조합장 간담회 실시 △매월 현장 방문의 날 시행 △조합 운영 실태점검 등을 추진해왔다.

전주시 관계자는 "주택건설 통합심의에 이어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정비사업의 바른 이해를 돕는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실질적인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등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설공단 근로자종합복지관이 2월 1일 운영을 재개한다.

'근로자종합복지관' 2월 1일 재개장

목욕장 · 체력단련장 이용 요금 주변 민간 시설 90% 수준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에 따르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은 2월 1일 운영을 재개하고 시민을 맞을 예정이다.

지난 26일 공단에 따르면, 복지관은 지상 3층 규모로 목욕장과 체력단련장을 갖추고 있으며,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매주 월요일에는 휴장한다.

이용 요금은 주변 민간 시설의 90% 수준으로 책정됐다. 목욕장은 대인이 8000원, 7세 이하 소인이 5000원이다. 체력단련장은 1개월 6만 원, 3개월 15만 원, 6개월 26만 원이다.

체력단련장과 목욕장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은 올 상반기 조례 개정 후 판매할 예정이다. 앞서 공단은 지난 16일부터 6일간 과거 복지관을 애용했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구대식 이사장은 "시민 여러분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이용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시설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도서출판 대원 또래아동도서, "아이들이 책 많이 읽으며 꿈과 희망 키워나가길"

1700만원 상당 유아용 도서 기탁

도서출판 대원 또래아동도서(대표 김원호)가 지난 25일 유아용 도서 200세트(1,700만원 상당)를 서신동 주민센터에 기탁했다.

이번 후원은 서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명철 전주시의원의 주선으로 이뤄졌다.

기탁 도서는 안도현 시인의 시어와 의성어 등을 담아 출판한 유아용 '엄마랑 아가랑 말놀이 동요 동시 그림책(10권 1세트)'으로 서신동에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축하 선물로 증정한다.

김원호 대표는 "기탁 그림책은 부모와 아기의 교감과 애착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으며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은성 서신동장은 "아이들을 위해 귀한 책꾸러미를 후원해주신 도서출판 대원 또래아동도서 김원호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도서출판 대원 또래아동도서가 지난 25일 유아용 도서 200세트(1,700만원 상당)를 서신동 주민센터에 기탁했다.

덕진동 통장협의회, 이웃사랑 후원금 100만원 전달

덕진동 통장협의회(회장 김금비)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이웃사랑 나눔 행사로 지난 25일 덕진동주민센터(동장 한의종)에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김금비 덕진동 통장협의회장은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풍요로운 명절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덕진동 통장협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의종 동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덕진동 통장협의회의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히며 "후원금은 관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저소득층 경제적 자립 돕는다

전주시, 2월 1~20일 '희망저축계좌II' 신규가입자 모집

전주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근로소득이 있는 차상위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Ⅱ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Ⅱ'의 가입 대상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으로, 신청 당시 차상위계층으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대상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가입자는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할 경우 정부지원금으로 월 10만 원이 추가 적립돼 만기 시에는 7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만기 적립금 수령을 위해서는 가입자가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번 '희망저축계좌Ⅱ' 1차 모집에 이어 오는 8월까지 2차례(5월·8월) 더 가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환경에 놓인 저소득층 세대에게 통장사업은 경제적 자립과 소중한 꿈을 키울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한 '희망저축계좌Ⅰ'는 1차 모집 기간이 3월 4일부터 15일까지이며, 이후 오는 10월까지 4차례(4월·6월·8월·10월) 더 모집할 예정이다. 또,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오는 5월 1일부터 21일까지 모집 예정으로, 가입희망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정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